

주가	환율	금리
+4.93	-2.70	보합
1,371.43 (코스피지수)	955.80원 (원/달러)	4.67%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87.43	(+2.15)
다우 (24일)	12,127.88	(+10.97)
나스닥(24일)	2,344.84	(-10.72)
닛케이	16,699.30	(-81.17)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9.07엔	(-0.38)
유로-달러 환율	1.2562달러	(+0.10)
3년만기 회사채	4.97%	(보합)
클레리	4.47%	(-0.01)

광주 선호기업(주) 컨소시엄

산자부 IT혁신네트워크 선정

광주시는 제조업체의 협업생산시스템(e-CPS)을 개발한 ㈜일산정보기술공사(대표이사 조병건)가 참여한 선호기업(주) 컨소시엄이 지방업체로는 유일하게 산자부로부터 주관한 2006년도 IT혁신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광주지역의 1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룬 ㈜일산정보기술공사를 포함, 전국에서 8개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향후 2년간 8억원이 지원된다.

선호기업(주) 컨소시엄은 이에 따라 ㈜일산정보기술공사, 컨설팅과 전자적 자원관리·생산관리시스템·제조실행시스템(MES)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맡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협력하여 기술지원과 생산자원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영유아용 분류 검출 '사카자키균'

남양유업 '소량만 인체에 해 없다'

최근 영유아용 분류에서 인체에 해로운 사카자키균이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양유업은 "이 균은 전 세계 분류에서도 검출되고 소량일 경우 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최근 식품안전포럼(회장 이영순), 수의 공중보건학회(회장 박용호)가 공동주관한 '국내 분류의 품질과 안전관리심포지움'에서 오세욱(한국식품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사카자키균은 공장이나 가정집에서도 검출된다"면서 "분류는 멸균제품이 아니어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 분류에서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카자키균이 100g당 3만배리 이상 돼야 인체에 해가 된다"면서 "국내에서는 0.3배리에 불과해 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 實利가 없다

- 1 "외제·대형차면 최고"
- 2 명품없으면 '짜퉁'이라도?
- 3 "아파트 이름 바꿔주세요"
- 4 외면당하는 중고시장
- 5 화순 로즈베이커리의 교훈

“품만 난다면...” 가짜 명품도 불티

초등학생들조차 몇달치 용돈 털어 명품 매장 기웃 백화점 명품 매출 대구의 2배...도 넘은 '겉치레'

광주·전남지역민들의 명품 선호 경향은 유별나다. 곳곳에 만연한 겉치레 문화 가운데 명품 선호 현상만큼 '실리보다는 허상'을 추구하는 지역민들의 소비성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드물다.

불경기로 백화점 매출은 주춤하는 데도 백화점내 명품매장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력이 안되는 대학생들은 신용카드 명품 구매에 나서고 초등학생들조차 몇달치의 용돈을 모아 명품 액세서리를 사는 실정이다. 신드롬처럼 번진 명품 선호 현상은 심지어 '짜퉁 명품'시장을 형성해 명품을 갖지 못한 대중들은 짜퉁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

현재 광주 시내에서 명품 정품을 살 수 있는 곳은 백화점이 유일하다. 지역

백화점들의 경우 불황에 허덕이고 있지만 명품매출은 오히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명품매장 강화에 나선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경우 1층에 명품관을 마련, 에트로·버버리·구찌·불가리를 입점시킨 후 이들 4개 브랜드의 매출 비율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4층에서 1층으로 이동시킨 버버리 매출은 명품관 입점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이동전보다 240%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세를 반영, 다음달 말께 3~4개의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명보시계와 몽블랑을 추가로 입점시킬 계획이다.

7개의 명품 브랜드가 입점한 광주신세계도 이들 브랜드의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페라가모 15%, 루이비통 13% 등 평균 10%대에 이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매출이나 매장규모면에서 비슷한 광주점과 대구점을 비교해 광주시민들의 유별난 명품 선호 경향을 꼬집었다. 그는 광주 인구가 대구에 비해 110만여명이나 적은 데도 동일 브랜드의 명품 매출을 보면 오히려 광주점이 대구점보다 2배정도 높다고 소개했다.

허상을 쫓는 명품 선호 현상은 짜퉁 시장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광주 시내에선 구시청사거리와 시내 일부 아울렛매장에서 짜퉁 명품을 공공연



히 판매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명품과 구별하기 힘든 A급 짜퉁은 찾아볼수 없지만 B급과 C급 짜퉁은 정품의 10~20%에 불과한 가격을 내세워 대학생 등 명품에 대한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젊은층에 깊숙히 파고들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명품 구입

과 치장으로 그만큼 사회적 효과를 보고 자기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명품 선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외모와 브랜드, 겉치레를 중시하는 지역 소비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명품 소비 열풍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인수"

박삼구 회장 "대우건설 인수 자구조정만 남았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의 컨소시엄을 통해 대한통운의 인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 "최종적인 자구조정만이 남았다"고 말해 인수협상이 사실상 종결됐음을 내비쳤다.

박 회장은 2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통운 인수에 관심이 있다"며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간 컨소시엄으로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대우건설 인수협상은 우발채무 해소방안 등 세부적인 몇몇 문제만을 남겨놓고 마무리됐다"며 "1~2주 정도 걸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만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실사를 통한 대우건설의 최종 인수금액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가격을 깎아달라고 했다는 데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놓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호건설과의 위상 정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우건설과의 합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별개의 회사로 운영하되 연구소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만 통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2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 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박 회장은 이날 "대한통운 인수에 관심이 있다"며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간 컨소시엄으로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우건설 인수가격

6조3천억원대 결정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매각 주관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가격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매각가격은 금호측이 예초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6조3천억원보다 낮은 6조3

천억원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최종 협상을 통해 실사 조정한다(입찰가의 최대 5%) 이내인 3~4% 수준에서 인수 가격을 조정하고, 인수 이후 발생하는 우발채무에 대한 손해배상한도(10%)는 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에 치) 계정을 통해 차후 정산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매각 종료 이후 1년 이내 발생한 사안에 제한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여성기업 온돌라이프·(주)테라이엔씨

전국 '스타기업 경진대회' 우수상

광주·전남지역 여성기업 2개 업체가 전국 여성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스타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5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에 따르면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편백나무 두한족열 온열침대'를 개발한 온돌라이프의 박명숙 대표(화순)와 '천연식물성 추출물과 쌀알겉이름 이용한 피부개선용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한

(주)테라이엔씨의 이정남 대표(광주 서석동)가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돼 중소기업청장상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여성스타기업 경진대회'는 예비여성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여성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사업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조기에 발굴, 여성의 창업활성화와 창업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

정부 보급종 범씨 3,400 t 수매

국립종자관리소 광령지소는 내년에 종자용으로 공급할 정부 보급종 범씨 3천400여 t 수매를 지난 16일 시작해 오는 11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수매품종은 동진1호, 일미벼, 새계화벼, 동안벼, 남평벼, 호평벼, 동진벼 등 7개 품종이다. 수매가격은 포장수매의 경

우 40kg 1가마당 5만8천140원, 산물수매는 1kg당 1천450원.

벼 보급종 농가 판매가격은 20kg당 2만6천500원이다. 문의는 국립종자관리소 광령지소(061-323-0701)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 방콕 직항

방콕·파타야·김보디아

₩ 670,000 ~

GOLF ₩ 850,000 ~

광주 ↔ 홍콩 직항

홍콩·마카오·심천

₩ 650,000 ~

광주 ↔ 씨엠림 직항

인도네시아·싱가포르·캄보디아·베트남

₩ 820,000 ~

전세기 사무실 TEL: 061-226-6070